

덱브펜® 300밀리그램

(덱시부프로펜)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정 중

- 유효성분 : 덱시부프로펜(KP) 300mg
-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알루미늄레이크, 황색203호 알루미늄레이크
- 기타 첨가제 : 규산하이알릴셀룰로오스, 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오파드라이브톤복합체(3B844003), 이산화규소

【성상】 분홍색의 정방형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1. 만성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2. 관절염
3. 급성 척추염
4. 외상 및 수술 후 통증성 부종 또는 염증
5. 염증, 통증, 및 발열을 수반하는 감염증의 치료보조

【용법·용량】

성인 : 1회 1정(덱시부프로펜으로서 300mg)을 1일 2~4회 경구투여한다. 단, 1일 덱시부프로펜으로서 1,200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 1) 매달 3인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 2) 심혈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투여 기간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독성의 징후 및/또는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취할 처치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울혈성부전증(NYHA II-III), 확립된 허혈성 심장질환, 알코올중독, 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신중히 고려하여 덱시부프로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용량 덱시부프로펜(1일 1200mg)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심혈관계 위험 요소(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고용량 덱시부프로펜(1일 1200mg)이 필요한 경우 정기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임상연구 결과 고용량(1일 2400mg) 이부프로펜 사용이 동맥 혈전 증상(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약학연구 결과 저용량 이부프로펜(1일 1200mg)이 것과 동맥 혈전 증상의 위험성 증가에 대한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덱시부프로펜의 동맥 혈전 위험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고용량 덱시부프로펜(1일 1200mg)의 위험이 고용량 이부프로펜(1일 2400mg)과 유사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위장관계 위험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궤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계 궤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것도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경우)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 1) 위장관궤양이 있거나 투여가 있는 환자, 또는 그 재발병력이 있는 환자
- 2) 위장관이나 뇌혈관 또는 다른 부위의 출혈이 있는 환자
- 3) 심한 혈액이상 환자
- 4) 심한 간장애 환자
- 5) 심한 신장애 환자
- 6) 심한 심부전 환자
- 7) 심한 고혈압 환자
- 8)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 9) 기관지 천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10)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 11) 만성동맥 우회혈관(CABG) 전후에 발생하는 흉증의 치료
- 12) 임신 6개월 이상의 임부(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기간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독매관을 조 기 폐쇄시킬 수 있다.)
- 13) 크론병 또는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장 질환 환자
- 14) 이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치료로 인해, 위장관 출혈 또는 천공이 발생한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 1) 아스피린 (1) 아스피린과의 병용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에 의해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2) 아스피린과 병용투여 시 이 약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2)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 시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장관 출혈 등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고용량(15mg/주 이상)의 메토틱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틱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틱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합연요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의 메토틱렉세이트

와는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

- 1) 모유수유 : 이 약이 보고되고, 이로 인해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이 우려되므로 약물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반응으로 어지러움 또는 피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환자의 반응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운전이나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1회 또는 단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다. 3) 장기간 동안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 1) 혈액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2)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혈소판 기능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
 - 3)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4) 신장 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5)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 환자
 - 6) 고혈압 환자
 - 7)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 8) 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 환자
 - 9) 고령자(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소량부터 투여를 개시하고 필요한 최소량으로 투여하며,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 10) 6세 이상의 어린이(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6세 이상의 어린이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특히 유의한다.)
 - 11) 위암 환자
 - 12) 알코올중독 환자
 - 13) 임신 초기, 중기의 임부(통통실험에서 대사독성(고투여량에서 적산수 및 생존수의 약제가 보였음)이 보고되어 있으며, 다른 해열진통제에서 태아손상지속증(PFO)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다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와 같이 이 약은 생식기능을 감소시킨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이나 불임장치를 받고 있는 여성은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임신한 환자
 - 15) 신장질환 및 만성 14) 허혈성심장병, 말초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
 - 15)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 16) 간성 포라피란증이 있는 환자(이 약 사용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 17) 혈액부족을 초래한 중대한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
 - 18) 이노제 또는 ACE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 19) 혈액응고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 20)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투여로 인한 소화관 궤양이 있는 환자로서, 이 약의 장기투여가 필요하여 미소프로스테롤 또는 소화성궤양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환자(미소프로스테롤에 의한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소화성궤양증으로 이 약을 투여하는 중 충분히 경각을 관찰한다.)
 - 21) 다음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1)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알코올 :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있다. (2) 디아진, 페니토인 : 혈장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프로베나이드, 셀빈피라존 : 프로베나이드, 셀빈피라존의 작용을 저하시키고 덱시부프로펜의 배설이 지연될 수 있다. (4) 셀로닐우레아제 : 셀로닐우레아제의 혈당강화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ACE 억제제 또는 인지오메신 II 수용체 길항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 억제제 또는 인지오메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항고혈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약과 ACE 억제제 또는 인지오메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이노제 : 임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판후 조산 결과 이 약의 신장장애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 푸로세미드 및 타이디드제 이노제의 니트륨 노배설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들 약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병용투여하는 동안 신장에 증상 및 신부전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7) 리튬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장애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장소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리튬의 병용 투여 시 리튬의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8) 쿠마린계항응고제(와르파린 등) : 위장관계 출혈에 대하여 와르파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중증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감광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9) 바르비톨 : 바르비톨의 독성이 증가한다. (10) 면역억제제(시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시롤리무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로 시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시롤리무스의 신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 (11) 혈전용해제, 티클로피딘, 항혈전제 : 덱시부프로펜은 혈소판 내 COX를 억제하여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그러나 덱시부프로펜을 혈전 용해제, 티클로피딘, 타크로리무스와 병용시 항혈소판 효과가 증가하는 위험이 있다. (12) 알코올 : 혈장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예, 알콜 저류형 이노제, ACE 억제제, 인지오메신 II 수용체 길항제, 시클로스포린과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면역억제제, 트리메토포림, 해피린 등) : 병용투여 시 고혈혈합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칼륨 수치의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13) CYP2C8, CYP2C9의 유도제(예, 리팜피신, 페노바르비탈) : 이 약의 농도를 증가하고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14) 저용량(15mg/주 미만)의 메토틱렉세이트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틱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틱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15) 항혈소판제 및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 이 약과 병용 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16)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 (이 약은 아스피린의 효도를 감소시키고,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 반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심혈관계 자료에서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병용투여시 이부프로펜이 저용량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 데이터 외삽법에 대해 임상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일반적 또는 장기간 이부프로펜 사용시, 저용량 아스피린의 심장 보호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덱시부프로펜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덱시부프로펜과 저용량 아스피린 사이에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시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급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찾아볼 것.
 - 1) 쇼크 : 드물게 쇼크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흉부 불쾌감, 오한,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할 것. 2) 혈액제 : 드물게 자살충동상현, 충동성변질, 괴롭, 백혈구감소, 백혈구감소, 구라감염,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혈소판기능 저하(출혈시간 연장), 호산구증다 등의 혈액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액검사를 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할 것. 3) 소화기계 : 소화불량, 복부팽만, 속쓰림, 식욕부진 등증, 설사나 변비, 때때로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통, 위부불쾌감이나 드물게 식도염, 식도궤양, 게실궤양, 비특이성 출혈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 소화성궤양 위장출혈, 천공, 혈변, 항장염 매우 드물게 구갈, 구내염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 4) 피부 : 다형홍반, 전신홍반루프스(SLE), 탈모, 때때로 혈관부종, 드물게 피부접막인종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증후군(리델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5) 과민반응 :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자색반, 드물게 전신발작의 유발, 습진, 아나필락시스 반응, 광민감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6) 간장 : 드물게 황달, ALT 상승, AST 상승, ALP 상승, 간기능 이상, 간염, 황달 등 7) 호흡기계 : 때때로 비염, 기관지염, 드물게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 급성 폐렴의 위험 8) 감각기계 : 드물게 두시, 양침 등의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또한 드물게 난청, 이명, 미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9) 정신신경계 : 피로, 졸음, 두통, 어지러움, 때때로 불안, 안절부절, 초관, 우울증, 드물게 무관성 수면증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심한 두통, 구역, 구토, 불면, 목이 뻣뻣함, 발열 또는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특히 자기면역질환(전신홍반루프스(SLE) 및 혼합결합조직병(MCTD)) 환자는 신중히 복용할 것. 또한 드물게 정신이상, 초조, 흥분, 방향감각장애, 가역성 독성약 시기 나타날 수 있다. 10) 순환기계 : 드물게 협착성, 협합성상, 심계항진 등 11) 신장 : 드물게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평소, 혈노 등의 증상 및 요단백, BUN, 혈중 크레아티닌의 상승, 고칼륨혈증이 검사조건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할 것. 또한 요양감소, 전신부종 및 이에 수반한 숨가쁨, 나른함, 드물게 신장유두 괴사, 신장수종 수 있고,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급성 폐부종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신부전 환자는 체액 저류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서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13) 내분비계 : 여성의 생식능력 감소 14) 기타 : 때때로 인와주위부종, 또한 매우 드물게 관절염, 발열, 코피, 염증, 외화 등
7.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대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적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2)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이었기 아닌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3)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상경향을 고려한다. (1) 이 약을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임상검사(모양사, 전혈구검사(CBC)) 및 이학적 검사(통, 활력 검사, 간기능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광,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하며, 필요시 혈청요소검사와항응고제투여), 혈중 칼륨농도검사(알칼리류제투여시) 또는 혈중 리튬농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거나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약용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4)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급성염증, 통증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2)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3) 한 인요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한다. (4) 장기 투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한다. 5)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반응의 발현에 유의하며, 과도한 처치(예, 하혈, 사지냉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열을 수반하는 유아, 소아 및 고령자 또는 소모성질환 환자에서는 투여 후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한다. 6) 이 약의 이학적특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통증성 및 비감염성 조건하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약을 감염에 의한 염증에 대해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제를 병용하고 관찰을 충분히 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7) 위장관계 이상반응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경장성 질환 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궤양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장관계 출혈을 증가시키는 다른 위험인자로써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병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 사용 알코올 섭취, 고령, 허약한 건강 상태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대부분은 고령자 및 허약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시 특별한 주의하여야 한다. 8) 고혈압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및 신장기능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타이디드제 이노제 또는 푸로세 이노제를 병용중인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요법에 대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기간 동안에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9) 울혈성부전 및 부종 :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관찰되었다. 이 약은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1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시 신장유두괴사나 신기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부전 환자, 간부전 환자, 이노제나 ACE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을 중단한 대부분 치료 전 상태로 회복된다. 11) 진행된 신질환 :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대한 통제된 임상 시험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계속해야 한다면,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12)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간기능 수치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일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황달, 치명적 전격성 간염, 간지사, 사지냉각 등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증상 및/또는 징후가 있는 환자 또는 간기능 수치와 비정상적인 환자에서 투여기간 동안 주의깊게 간기능의 악화 여부를 관찰하고, 간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징후(예 : 호산구증가증, 발진)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한다. 13)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장기 투여에 의해 빈혈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치 또는 헤마토크리트 검사를 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혈소판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지속기간이 짧으며 가역적이다.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시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4)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 :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은 약물에 노출된 경향이

없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비특이적 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중증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내는 천식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피부반응 : 이 약은 발발부, 피부접막인종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 표피괴사증후군(리델 증후군) 같은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대한 이상반응은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현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물을 투여할 야 한다. 16)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17)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대체를 대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갑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반응성 질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8)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에서 일시적인 불임이 보고되었다. 19)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이었기 아닌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20) 임신기간에 대한 영향 : 드물게 요소질소, 트레아미나제, 알칼리포스파타제의 증가,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의 감소, 혈소판 응집저하, 출혈시간 연장이 나타날 수 있다. 21)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시합제) : 국내에서 재사용을 위하여 4년 동안 각각 654명, 4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6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발현율을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61% (4명/654명, 4건)로 보고되었다. 보행, 열감부종, 소화불량, 가려움증이 각각 0.15%(1명/654명, 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율은 0.46%(3명/654명, 3건)으로 보행, 열감부종, 소화불량 각각 0.15%(1명/654명, 1건)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보행 0.15%(1/654명, 1건)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1건, 발진 1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불확실한 규모의 인구집단으로부터 보고되었으므로, 그 빈도 및 이 약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2) 4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07% (5명/469명, 5건)로 보고되었다. 설사0.85%(4명/469명, 4건), 구토 0.21%(1명/469명, 1건)로 조사되었으며, 약물유해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중 중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8. 과량 투여시의 처치

이 약을 과량복용 시 어떠한 명백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더라도 신중한 의학적인 처치를 받아야 하며(빠르게 위세척을 하거나 물을 마셔서 희석한다). 섭취 후 60분 이내의 경우에는 구토를 시도할 수 있다.

9. 저장상의 주의사항

-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튼튼한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투약을 꼭 담아 보관한다.
- 3)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시효원인이 되거나 품질저하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포장단위】 30정, 300정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제 조 자】 (주)한국글로벌제약
충청남도 서천군 풍천면 풍천공단길 32번길 26

【제조회자】 이연제약(주)
충청남도 진천군 덕산읍 한성로 69-10

※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장·변태 또는 오염되거나 손상된 제품은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이 첨부서류 작성일자(2019년 09월 01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www.reyonpharm.co.kr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용어설명이나 기타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검색 참조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http://www.drugsafe.or.kr>, 1644-6223)에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080-221-2000(수신자부담)

작성년월일 : 2019. 09. 01

10283-00

이연제약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성로 69-10
TEL. (043)536-5177